2022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지

- * 총평: 2022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처럼 쉽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웠다고 보기도 힘든 시험지입니다. 비밀러는 쉽게 출제되었고, 준밀러는 괜찮은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밀러 유형으로 분류되는 18번, 19번이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평가원 시험에서는 비밀러, 준밀러, 밀러 모두 이 시험보다는 높은 난이도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들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교육청 시험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꽤 훌륭했기 때문에, 학습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만약 본인의 풀이가 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은 본인의 풀이도 괜찮은지 궁금한 경우 등은 제게 피드백을 부탁하면 꼼꼼히 해 드리겠습니다.
- 문제의 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해설을 보세요. 문제 조건을 정확히 숙지했다는 전제 하에 해설을 씁니다.
 - 1. 2022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11번 (답: ①)
 - ① (나)에서 ⑦+ⓒ이 1이므로, (나)는 n(1)인 III이고, 남 은 (ㄲ)는 n(2)인 II이다.
- ② n(1)인 III((나))에서 B+¬oi 20i므로, ¬은 aoi고, ○은 boi며, III는 a와 B를 모두 갖는다.
- ③ n(2)인 II((¬+))에서 B는 0인데, B+¬(a)은 2이므로 II는 a를 갓는다. 그런데 II((¬+))에서 ¬(a)+□(b)은 2 이므로 II는 b를 갓지 않는다.
- ④ II는 a를 갖고, B와 b를 모두 갖지 않으며, III은 a와 B를 모두 가지므로 A와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B와 b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며, oI 사람의 유전자형은 aaBY(또는 aaXB)이다.
- ㄱ. (나)는 III이다. (○)
- L. (a)은 상염색체에 있다. (x)
- C. I에서 A와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0이다. (x)
- 2. 2022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12번 (답: ②)
- ① (가)와 (나)에 모두 ③, ⑥, ⑥이 있으므로, (가)와 (나)에는 모두 막전위가 0, -70, -80인 지점이 있다. 흥분 전도 속도는 (나)가 (가)보다 빠르므로, (가)의 어떤 지점에서의 막전위가 -80일 때, (나)의 그 지점에서의 막전위는 -70이어야 한다. 이때 (나)의 -70은 그래프에서 -80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70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d_2\sim d_4$ 중 자극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 ②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막천위는 그래프의 오른쪽에 존재하므로, $d_2 \sim d_4$ 중 자극 지점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지점인 d_3 에서 (나)의 막전위는 -80이고, 자극지점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나)의 막전위는 0이다. 이때 표에서 (가)와 (나)의 막전위가 같은 지점은 없으므로, $d_2 \sim d_4$ 중 자극 지점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지점인 d_3 에서 (가)의 막전위는 0이고,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가)의 막전위는 -70이다.

- ③ 흥분 전도 속도는 (나)가 (가)의 2배인데, $d_2 \sim d_4$ 중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가)의 막전위가 -80이고, d_3 에서 (나)의 막전위도 -80이므로, $d_2 \sim d_4$ 중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과 d_3 의 거리비는 1:2 이다. 즉 자극 지점(X)은 d_1 이고,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1이며,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2이다. 또한 (가)의 d_2 에서의 막전위는 -80이고, (나)의 d_2 에서의 막전위는 -70이므로 (근은 -80이고, (은 -70이며, 남은 (은은 0이다. 이때 d_3 에서 (가)의 막전위는 0이고 (나)의 막전위는 -80이므로, B는 d_3 이고, 남은 A는 d_4 이다.
- ㄱ. X는 d₁이다. (x)
- ∟. 句은 -80이다. (○)
- □. ⓐ가 5ms일 때 (나)의 B(d₃)는 1/4로, 분극 상태이□. (×)
- 3. 2022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13번 (답: ①)
- ① 대립 유전자의 연관/독립 상태는 2연관 1독립이고, @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3가지이므로, 부모(P와 Q)의 기본 부정형은 210, 210 또는 110, 110 이다. 그런데 @가 가질 수 있는 ③은 1, 3, 5 중 하나이므로 부모의 기본 부정형은 210, 210 이다.
- ② 부모의 기본 부정형만 고려하면 자손에게서 나타날수 있는 표현형은 (4), (2), (0)이지만, ③가 가실 수 있는 ③은 1, 3, 5 중 하나이므로 부모에서 자손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되는 대문자 수는 1이다. 부모의 기본 부정형인 20, 210 은 모두 부모의 2연관 자리(7번 염색체)에 들어가고, 변형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의 1독립 자리에 확정형 111 과 이0 이 하나씩 들어가야 하고, P는 d를 가지므로 111 이 Q에, 이0 이 P에 들어가야 한다. 즉 P는 210, 이0 이고, Q는 210, 111 이다.
- ㄱ. (ㄲ)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
- L. P의 ¬은 2, Q의 ¬은 4이므로, 구하는 분수 값은 1/2이다. (x)
- C. ⓐ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과 그 비율은 (5): (3): (1) = 1:2:1 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1/2이다. (x)

- 4. 2022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18번 (답: ⑤)
- ① (나)에 대해서 3과 4(부모)는 모두 정상인데 7(차손)은 병이고, 5(엄마)는 병인데 8(아들)은 정상이므로 (나)는 열성 일반 유전이다. 자동으로 (가)는 X 염색체 반성유전이 된다. 그런데 (가)에 대해서 5(엄마)는 병인데 8(아들)은 정상이므로 (가)는 열성 X 염색체 반성 유전이 아니다. 따라서 (가)는 우성 X 염색체 반성 유전이다. (5와 8의 관계 대신 5와 9의 관계 또는 6과 3의 관계를 봐도 된다.)
- ② ⓐ, 5, 8, 9(4인 가족)의 혈액형은 각각 서로 다른데, 5는 A형이므로, 5는 A0이고, ②는 B0이며, 8과 9는 AB와 00 중 하나이다. 2가 hhol므로 ③는 h를 갖는데, 5는 hhol고 8은 H를 가지므로 ③는 Hhol다. 이때 ④는 A형인 1로부터 B를 받을 수 없으므로 2로부터 B를 받았고, 이때 h도 같이 받았으므로, ③는 $\frac{8}{10}$ 이다.
- ③ ②는 $_{h}^{B}||_{H}^{O}$ 이고 5는 $_{h}^{A}||_{h}^{O}$ 인데, 8과 9는 AB와 00 중 하나이므로, 8은 $_{H}^{O}||_{h}^{O}$ 이고, 9는 $_{h}^{A}||_{h}^{B}$ 이다. 이때 3, 7, 8의 혈액형은 모두 같으므로 3과 7의 혈액형은 모두 0형이다.
- ¬. (¬+)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
- L. 701 ${}_{h}||_{h}^{0}$ 이므로 4는 $|_{h}^{0}$ 를 갖는데, 3은 0001고 6은 A를 가지므로 4는 A0이다. 따라서 4는 ${}_{h}||_{h}^{0}$ 이다. 이때 2는 ${}_{h}^{0}||_{h}^{2}$ 이므로 4의 ${}_{h}^{0}|$ 는 1로부터, $|_{h}^{0}$ 는 2로부터 온 것이다. 또한 ⓐ는 ${}_{h}^{0}||_{h}^{0}|$ 인데, ⓐ의 ${}_{h}^{0}|$ 는 2로부터 온 것이므로 $|{}_{h}^{0}|$ 는 1로부터 왔다. 따라서 1은 ${}_{h}^{0}||_{h}^{0}|$ 이다. 즉 1과 ⓐ는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다. (×) ${}_{h}^{0}$ 3은 gY01고, 2가 gg01므로(또는 701 gY01므로) 4는 Gg01다. 또한 701 ${}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0}||_{h}$
- 5. 2022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19번 (답: ①)
- ① (가)의 우열 관계는 D > E > F 이다.
- ② 아버지는 ③ⓒ이고, 어머니는 ③ⓒ이다. 자녀 2와 자녀 3은 모두 ③을 2개 갓는데 표현형이 서로 다르므로, 둘 중 한 명이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난 자손이다. 즉자녀 1은 정상 자손이므로, 자녀 1은 ⓒⓒ이다.
- ③ 아버지와 자녀 1의 표현형은 @로 같으므로, ⓒ이 ① 과 ⓒ에 대해서 모두 우성이다. 즉 ⓒ은 D이고, @는 D 이다. 한편 ①과 ⓒ은 E와 F 중 하나이므로 어머니는 EF 이다. 이때 어머니의 표현형은 ⑥이므로 ⑥는 E이고, 남은 ⓒ는 FoI다.
- ④ 자녀 3의 표현형은 F(ⓒ)이므로 ¬은 E일 수 없다. 따라서 ¬은 F이고, 남은 ⓒ은 E이다. 이때 자녀 2는 F(¬)를 2개 가지는데도 표현형이 E(⑯)이므로, 자녀 2 는 EFF, 즉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난 자손이다.

- ⑤ 아버지는 DF(句心), 어머니는 EF인데 비분리는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으므로, 아버지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자녀 2에게 FF를, 어머니는 자녀 2에게 E를 물려주었다.
- ¬. □은 Doi다. (○)
- L. 자녀 2에서 체세포 1개당 ⓒ(E)의 DNA 상대량은 1이다. (★)
- C.P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 났다.(x)